

그 옛날 동북리는 무촌(無村)이라수다 한다. 서김녕(西金寧) 밀양 박덕(朴宅) 하르바님이~ 세 경땅에 농서 농업을 지어놓고 밋걸름이 없어지면 허난~, 이 동북 지경에~ 듬북<sup>1)</sup> 허레 물떼 맞 추완 오라근. 듬북을 허며 므른 밧드레 널단 애가 쿵쿵 물라집데다. 물이 졸졸 흐르는 곳을 간. 었더지여 물을 빨아먹은 것이, [\*불청\*] 박씨 하르바님 듬북 허레 읍디다. 듬북 허레 오란. 그날 현 건 널고 아시날<sup>2)</sup> 오후 저녁 현 건. 지어 앓언 도로 밧디 간 부려된 집이 간 잇단. 7만7만 생각을 허난-. 이에- 하르바 박씨 하르바님 혼자만 이 부락에 질 먼저 오란 엄막<sup>3)</sup> 지언 삽데다 글지 후에<sup>4)</sup> 현 사람 두 사람 오라 메와지는 게. 그 옛날은 삼백 여 호가 뒹엿수다 한다~. [요령] 어- 글지 후, 이에 부락에, 육상 해상에 풍화(風波)가 지언, 필연곡절(必有曲折) 이상허다. 구 석구석 므을 도량(道場)을 막 돌단. 저 겻겻<sup>5)</sup> 바위<sup>6)</sup> 내려간 보난. 난데없는 소방상 상여화단이 이엿- 올라십데다. 필연곡절 이상허다 영 허여-. 그 상여화단을 부락 안네 거리 가운데 갓단 이에 놓디다 놓안 그떼 정월 초사흘 초일뤼~, 위망 적선을 허난 펜안허단 도로 이삼년 후엔 부락 조손덜이 그만 돈데무심허여 갑데다~. 돈데무심을 허는디~ 도로 부락에 풍파가 지어가난. 이에 - 정월 초일뤼 삼월은 나민 열일뤼-, 또, 칠월은 나민, 칠월도 여릴뤼, 구월들도 음력으로 여릴뤼, 영 허여 일년에 봄 농서 농업, 7세문안, 이에- 7을~ 마불림 농서 농업 7세문안~, 일년에 네 번을 뎡기는디 어떻 허연-, 상여하르바님허고 할마님허고 훈밧디<sup>7)</sup> 좌정(坐定)허연 상(床)을 받단. 할마님은 그만 므을 순력(巡歷)사 돌레 나가신디 어떻사 허여신디 모르쿠다 한다 어디 잔칫집인가 오꼳<sup>8)</sup> 간 남포리<sup>9)</sup> 알 늑발공상<sup>10)</sup> 국물인가 궤긴가 현 점 얻어앓언 오란~, 현 것이 하르바님은 념세가 나전. 할망7라<sup>11)</sup> 오랜 허연 조꼳디<sup>12)</sup> 오란 “무신 거 먹언딘?” 허난 “아무것도 아이<sup>13)</sup> 먹엇수다.” “어떻 허연 종경네도 남저 비린네도 남덴.” 영 허연 현 것이~ “아이고 어디 간 저 국물 현 적<sup>14)</sup> 얻어먹엇수덴.” 허난, 옛- 그떼에, 상여하르바님은 그냥 거리 안네서 상을 조순(子孫)드레 받으나 받고, 할마님은 브름 알로 내려사는 것이, 굴묵~ 밧으로 내려사근. 해녀(海女)더레 어부(漁夫)더레 츠질 허고 남포리 알 늑발공상도 반곡 허엿수다 한다 어~, 글지 후, 일본 한국 합방뒹연 일본사름 한국사름 일본 갈 적엔디~, 그만 일본사름덜이 당도 부수라 절도 케우라<sup>15)</sup> 영 허여가난 큰일났져~. 동네 평산 신칩잇 할마님-, 도로-, 풍천 임칩잇 할마님, 또 강칩잇 할마님이, 나산~<sup>16)</sup> 이에 어떻 허민 좋고~. 이엿- 영 현 게 거창 신칩잇 하르바님은

1) 듬북 : 뜰부기. 바다풀의 일종.

2) 아시날 : 전날.

3) 엄막 : 움막.

4) 글지 후에 : 그 뒤에.

5) 겻겻 : 겻가.

6) 바위 : 가장자리.

7) 훈밧디 : 한 군데. 한 곳에.

8) 오꼳 : 그만.

9) 남포리 : 부춘돌.

10) 늑발공상 : 사족공신(四足恭神). 소나 돼지 따위 네발 동물의 고기를 먹음.

11) 할망7라 : 할머니에게.

12) 조꼳디 : 가까이.

13) 아이 : 아니.

14) 현 적 : 한 입. 한 모금.

15) 케우라 : 태워라.

16) 나산 : 나아서.

이 본향 앓일 디 울따리를 돌르켄 허연 돌르곡~, 아이고 저 북촌 고씨 선생앞이 간 본향을 뽕겨  
 도렌<sup>17)</sup> 허난, 난 나라에서 통정대부(通政大夫) 직함(職銜)을 받안 난 설러부난<sup>18)</sup> 난 강 못 헌덴  
 영 굴으난,<sup>19)</sup> 게민 어떻 허리 그떼에 홍씨 할마님 홍씨 선생가, 게민 나 하르방 데토로<sup>20)</sup> 가근에  
 허여주켄 허연 앞사고<sup>21)</sup> 영 허여 저 거리 안네 잇인 본향을 이 소금막으로 뽕겨 오랏수다~. [요  
 령] 뽕겨 오란 각 성친덜, 문<sup>22)</sup> 나산, 브름웃도 상여하르바님을, 위망적선허는디 막곳데엔<sup>23)</sup> 이  
 예 홍씨 선생님이 이에 상단궐 즈손 나이 많은 즈손덜이우다. 중단궐 중청년 즈손 하단궐 아이~  
 옛- 영 허연 제비를 딱 받안 보난, 산을 받고 보난 백마강(白馬江) 얼음찜이라 아이고 이 부락에  
 큰일났저. 젊은 청년덜 다 죽어불민 어떻 허코~, 어느 왕에 등장(等狀) 들리. 부락 유지 이장앞  
 이 이논(議論) 공론(公論)허여 우리 인생은 어둔 디서 불혀야만이 사는 법이랑~, 명부 대신시왕  
 십전데왕 삼명감 청허영 그 앞으로 엑덜을 막으렌 영 허연 허난~, 이에- 그떼에 엑을 막아산 죽  
 을 청년덜 문짝<sup>24)</sup> 살고 부락 펜안(便安)허여 오는 게 뒷헤부떠는~, [요령] 계속- 예 본향엔 본향  
 브름웃도, 상여하르바님에 억만 육괘 못고, 또 이젠은 브름알또 상여할마님엔 요왕(龍王) 츠지허  
 던 어부광 헤녀덜이 이에 삼월 초오드렛날 데제일로~ 또 이전~, [요령] 위망 적선을 허여 읍디  
 다 헌디 ㄱ만썸<sup>25)</sup> 부락에서-, 생각을 허난 이건 아이 뽕켜. 야 이거 혼 ㅁ실에서<sup>26)</sup> 반 갈라지영  
 이, 이거 본향하르방 할망 ㅁ로 위망 적선을 허게 뽕난 아이 뽕켄 허연 브름알또 상여할마님도  
 신청 ㄱ리메<sup>27)</sup> 담 다완<sup>28)</sup> 예 동세벽<sup>29)</sup> 모삿수다<sup>30)</sup> 모사놓고 헤년마다 홍씨 선성님 후로 정씨  
 선성, 박씨 김씨 선성님네 산 ㅁ지도~ 이에- 본향 데제일엔 대신왕을 청허영 꼭 이 엑을 각  
 성친 즈손덜 막아온 유전 풍속이 [요령] 뽕여지여 삽네다 허난~.

강정식, 『동북리 본향당굿』, 문화체육관광부·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, 2011, pp.170-173.

---

17) 뽕겨도렌 : 옮겨달라고.  
 18) 설러부난 : 그만두어버리니.  
 19) 굴으난 : 말하니.  
 20) 데토로 : 대신.  
 21) 앞사고 : 앞장서고.  
 22) 문 : 모두.  
 23) 막곳데엔 : 마지막에는.  
 24) 문짝 : 모두, 남김없이.  
 25) ㄱ만썸 : 가만히.  
 26) ㅁ실에서 : 마을에서.  
 27) ㄱ리메 : 가림막.  
 28) 다완 : 쌀아.  
 29) 동세벽 : '동쪽' 정도의 뜻.  
 30) 모삿수다 : 모셨습니다.